《삼국유사》 고구려 불교초전 기사에 대한 역주
(《三國遺事》 高句麗 佛敎初傳 記事에 대한 譯註)

辛 種 遠

(강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박물관장)

고구려에 불교가 처음 전해진 사적에 대하여는 《삼국유사》 흥법편(興法篇)의 순도조려조(順道肇麗條) 및 아도기라조(阿道基羅條)의 후반부에 실려 있다. 본고(本考)는 이들에 대한 역주(譯註)를 시도해본 것이다. 기존의 역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참고하였다.

◈ 리상호 옮김, 1960, 신서원 영인(影印).
◈ 야촌요창(野村耀昌) 역(譯), 《국역일체경(國譯一切經)》 소수(所收), 1962.
◈ 이재호 역주, 1967, 명지대학.
◈ 이병도 역주, 1975, 광조출판사.
◈ 권상로 역주, 1978, 동서문화사.

順道肇麗(道公之次 亦有法深·義淵·曇巖之流 相繼而興敎 然古傳無文 今亦不敢編次 詳見僧傳)

高麗本記云 小獸林王卽位二年壬申乃東晉咸安二年孝武帝卽位之年也 前秦符堅遣使及僧順道送佛像經文(時堅都關中 卽長安) 又四年甲戌阿道來自晉 明年乙亥二月創肖門寺以置順道 又創伊弗蘭寺以置阿道 此高麗佛法之始 僧傳作二道來自魏云者誤矣 實自前秦而來 又云肖門寺今興國伊弗蘭寺今興福者亦誤 按麗時都安市城 一名安丁忽在遼水之北 遼水一名鴨淥今云安民江 豈有松京之興國寺名 讚曰 鴨淥春深渚草鮮 白沙鷗鷺等閑眠 忽驚柔櫓一聲遠 何處漁舟客到船

순도가 고구려에 불교를 처음 전하다(순도공(順道公)의 다음에 또한 법심(法深), 의연(義淵), 담엄(曇嚴)의 무리들이 서로 잇달아 불교를 일으켰다. 그러나 고전(古傳)에는 기록이 없으므로 여기서도 함부로 목차를 세우지 않는다. 자세한 것은 승전(僧傳)에 나타나 있다. -원주(原註).[1]

고려본기(高麗本紀)에 이런 말이 있다. 소수림왕 즉위 2년 임신년은 곧 동진(東晉)

1) 覺訓이 지은 《해동고승전》을 보면 順道傳 다음으로 亡名, 義淵, 曇始傳이 실려 있다. 亡名의 高麗人이란 支遁道林이 竺潛 즉 竺法深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德을 찬탄한 高麗道人을 말한다. 일연은 이 고려도인을 法深이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杜撰이라고 木村宣彰이 지적된 바 있다(後述할 논문의 40쪽).

함안(咸安) 2년이니 효무제가 즉위한 해다.[2] 전진왕(前秦王) 부견(符堅)이 사신 및 중 순도(順道)를 시켜 불상과 경문(經文)을 보내 왔다(이때 부견은 관중(關中)에 도읍했으니 곧 장안(長安)이다 - 원주(原註)). 또 4년 갑술년에는 아도(阿道)가 진(晉)나라에서 왔다. 이듬해 을해년 2월에는 초문사(肖門寺)를[3] 지어 순도를 그 곳에 있게 하고, 또 이불란사(伊弗蘭寺)를 지어 아도를 머물게 하였다. 이것이 고구려 불법(佛法)의 처음이다. 승전(僧傳)에는 이도(二道)가 위(魏)나라에서 왔다고 하였는데 틀린 것이다. 실은 전진(前秦)에서 왔다.[4] 또 초문사는 지금의 흥국사(興國寺), 이불란사는 지금의 흥복사(興福寺)라 한 것도 잘못이다. 살펴보건대 고구려 때의 도읍은 안시성(安市城), 다른 이름은 안정홀(安丁忽)이니 요수(遼水)의 북쪽에 있었다. 요수의 다른 이름은 압록인데 지금은 안민강(安民江)이라 한다. 어찌 송경(松京) 흥국사의 이름이 여기에 있을 수 있으랴.[5] 기린다.

압록강에 봄은 깊어 풀빛 고운데
모랫벌 갈매기 한가로이 졸고 있다.
문득 저 멀리 노젓는 소리
어느 곳 어선(漁船)인지 길손이 온다.

---

2) 함안은 동진 簡文帝의 연호. 서기 372년.

3) 《해동고승전》 순도조에, 「肖門寺」란 省門寺를 잘못 쓴 것이라 하였다. 사찰이 아직 없던 시절, 외국 승려를 관청 건물에 모셨을 것이므로 타당한 판단이다.

4) 木村宣彰은 고구려로의 불교전래 紀年 및 전래자의 이름이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그 出自에 대해서는 자못 異說이 많은 것에 주목하여, 이들 한국측 史書이 내용을 부인한다(<曇始と高句麗佛教> 《佛教學 semina》31, 1980). 그 이유는 순도·아도 관계기사는 기껏해야 12세기에 성립된 《삼국사기》에 처음 나오지만, 중국측 역사책에는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삼국사기》란 중국 史書를 보고 적당히 紀傳體로 날조한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출발한 논리이다. 그 자신도 지적하고 있듯이, 「고려본기」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를 가리킬텐데, 《삼국사기》에 없는 「(阿道來)自晉」의 두 글자가 덧붙어 있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아마도 그는 舊三國史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듯하다.

木村宣彰은 순도와 아도 모두 前秦·東晉·魏나라에서 왔다는 설이 있다고 하였으나, 자료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순도에 대해서는 《해동고승전》 順道條에 「或說順道從東晉來」라는 異說이 있다. 그러나, 순도가 魏나라에서 왔다는 설이 있다고 본 그의 주장은 「僧傳作 二道來自魏」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 같다. 「二道」를 순도와 아도라고 본다면 이 주장은 타당하겠지만, 「이도」는「아도」를 잘못 쓴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신종원, 〈삼국유사 阿道基羅條 역주〉 《송갑호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 568쪽, 1993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다. 이렇게 본다면 고구려에 온 아도의 出自에 대해서는 東晉說이 유일한 것이다. 이 아도가 魏나라에서 왔다는 「僧傳」의 기사를 順道肇麗條에 인용한 까닭은 그가 신라에 불교를 처음 전했다고 하는 아도와 동일인이라고 본 일연의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일연의 판단은 실은 《해동고승전》의 그것을 답습한 것에 불과하며, 覺訓은 「古文」=「殊異傳」에 의거하여 阿道傳을 쓴 것이다. 어떻든 「二道來自魏」기사 자체가 杜撰이고 「實自前秦而來」는 근거를 알 수 없는 일연의 논평이므로, 이에 의존하여 아도가 魏 또는 前秦에서 왔다는 설이 있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5) 같은 이름의 절이 북쪽과 남쪽에 각각 있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리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다(요약). 당시 고구려의 서울은 국내성이었으므로 성문사와 이 불란사는 輯安에 있었음이 틀림없는데, 평양에도 흥국사와 흥복사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평양에는 광개토왕 3년에 九寺를 창건한 바 있는데, 이것은 고구려가 南進政策을 펴는 과정에서 평양으로 천도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 그러므로 국가를 일으키는 데 있어 불교의 역할을 크게 기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성문사와 이 불란사도 이 때 이름이 바뀌었고, 다음 장수왕대에 평양으로 천도할 때 흥국사와 흥복사도 평양으로 옮겨졌을 것이라 추측하는 것이다. 신동하, <고구려의 寺院造成과 그 의미> 《한국사론》19, 서울대학교, 1988.

阿道基羅

又按元魏釋曇始(一云 惠始)傳云 始關中人 自出家已後多有異迹 晉孝武大元年末 齎經律數十部往遼東宣化 現授三乘立以歸戒 蓋高麗聞道之始也

아도가 신라 불교의 기초를 닦다

또 북위(北魏)의 스님 담시(曇始)(혹은 혜시(惠始)라고도 한다 - 원주(原註)[6])의 전기를 살펴보자. 담시는 관중(關中)[7] 사람인데 출가한 뒤로 이상한 일이 많았다. 동진 효무제 태원(太元) 말년에[8] 담시는 경률(經律) 수십부를 가지고[9] 요동(遼東)으로 가서 불교를 전파하였는데, 삼승(三乘)의 가르침을 드러내 주었고[10] 삼보(三寶)에 귀의하는 계법(戒法)을[11] 세웠다. 아마 고구려에서는[12] 이때 처음으로 불교에 접하였을 것이다.[13]

---

6) 《魏書》 권114, 釋老志에 惠始傳이 있는데 내용은 대개 비슷하다.

7) 지금의 陝西省 땅. 동쪽은 函谷關으로부터 서쪽은 隴西關에 이르는 두 關所의 사이를 關中이라고 부름. 그 중심은 洛陽, 長安이다.

8) 최남선・리상호・이병도・이재호・권상로 本에는 「九年(384)末」로 되어 있는데 , 「大元年末」이 의미가 통하지 않아서인지 「九」를 補入하였다. 추측컨대 「元」字를 「九」로 추정한 것 같다. 뒤의 「議曰 曇始以大元末到海東」을 보면, 이것은 「末年」을 잘못 쓴 것 같다. 梁《高僧傳》권10, 曇始傳(大正藏 50, 392쪽. 이하 「梁傳」으로 略함)에도 「晉孝武大元之末」로 되어 있고, 唐 神請의 《北山錄》에도「晉曇始孝武末」이라 씌어 있다(大正藏 52,589쪽). 《海東高僧傳》 담시전에는 광개토왕5년 (395)이라 하였으므로, 「末年」을 「마지막 해」로 이해하였다.

9) 원문의 「□」를 권상로 本 및 梁傳 曇始條에는 「齎」자로 썼다.

10) 梁傳에는 「顯」.

11) 《삼국유사》 義解, 圓光西學條에 「歸戒滅懺之法」이란 말이 나온다. 같은 책, 義解, 慈藏定律條에 「歸心三寶」의 용례도 참고가 된다. 「歸戒」를 「三歸五戒」라고 보는 논고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김영태, 〈고구려 불교사상〉 《숭산박길진박사화갑기념 한국불교사상사》, 33쪽, 원광대학교, 1975 및 木村宣彰, 〈曇始と高句麗佛敎〉 《佛敎學 Semina》 31,37쪽, 1980. 한편 「제자리에서 3승을 가르쳐 주어 당장에 불교를 믿게 하였으니」(리상호), 「그 자리에서」(이병도), 「즉시 佛戒에 귀의하게 했는데」(이재호), 「곧…」(권상로) 등의 번역이 있다.

12) 원문은 「高麗」. 梁傳에는 「高句麗」라 되어 있다.

13) 木村宣彰은 앞 논문에서, 고구려에 불교를 처음 전한 승려는 順道나 阿道가 아니라 曇始라고 결론지었다. 그 이유는 중국측 자료에 모두 고구려 불교 初傳者를 담시라 하였고, 최치원의 智證大師碑文에도 담시가 불교를 처음 고구려에 전했다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木村宣彰은, 담시에 관해서 기록한 《高僧傳》이나 지증대사비문을 一然이 알지 못하고 《해동고승전》만을 통해서 담시의 존재를 알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된다. 첫째. 《삼국유사》의 담시 기사는 《해동고승전》보다 오히려 梁傳에 더 가깝다. 둘째. 《삼국유사》 阿道基羅條의 담시 기사 앞 부분에 「梁・唐 두 고승전 및 三國本史에는 모두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 불교의 시작이 晉나라 말년 太元年間이라 하였다」고 나오므로, 일연이 《고승전》을 보았던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셋째. 《해동고승전》에 보이지 않는 「一云 惠始」기사는 《魏書》 등에 의거한 듯하므로, 《삼국유사》의 담시 기사가 전적으로 《해동고승전》에 의존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넷째. 《삼국사기》에는 순도・아도 기사만 나올 뿐 정작 담시 기사가 보이지 않는 점을 들어 《삼국사기》의 사효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오히려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담시가 고구려에 온 시기를 일연이 태원 말년의 어느 해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듯이, 《삼국사기》 撰者도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高句麗本紀의 編年體 서술방식상 담시 기사는 실릴 수 없다.

義熙初 復還關中開導三輔 始足白於面 雖涉泥水未嘗沾濕 天下咸稱白足和尙云晉末 凉方凶敗 赫連勃勃破獲關中斬戮無數 時始亦遇害刀不能傷 勃勃嗟數之 普赦沙門悉皆不殺 始於是遍遊山澤修頭陀行 拓拔燾復剋長安擅威關洛 時有博陵崔皓小習左道猜嫉釋教 旣位居僞輔爲燾所信 乃與天師寇謙之說燾 佛敎無益有傷民利 勸令廢之云云

의희(義熙)[14] 초년에 담시는 다시 관중(關中)으로 돌아가서 삼보(三輔)[15] 지방을 개도 (開導)하였다. 담시는 발이 얼굴보다 희었는데, 흙탕물을 건너더라도[16] 발이 젖는 일이 없 어 세상에서는 모두 그를 백족화상(白足和尙)이라 불렀다고 한다.[17]

동진(東晉) 말기에 북방의 흉노 혁연발발(赫連勃勃)이[18] 관중(關中)을 함락시키고 수많 은 사람을 죽였다. 그때 담시도 역시 화를 당했으나 칼에[19] 맞아도 상처가 나지 않았다. 발발(勃勃)은 감탄하여[20] 뭇 승려들을 놓아주고 하나도 죽이지 않았다. 그러자 담시는 산과 골짜기로 도망하여 두타행(頭陀行)을[21] 닦았다. 척발도(拓拔燾)가[22] 다시 장안(長 安)을 쳐서 이기고 관중과 낙양에 위세를 떨쳤다. 이때 박릉(博陵)에[23] 최호(崔皓)라는[24] 사람이 있었는데, 좌도(左道)를[25] 조금 익혀 불교를 시기하고 미워했다. 최호의 지위가 재 상에[26] 오르고 척발도의 신임을 받게 되자,[27] 천사(天師) 구겸지(寇謙之)와[28] 함께 척발도 에게 다음과 같이 아뢰어 꾀었다. 「불교는[29] 무익(無益)하고 민생(民生)에 해롭습니다.」 고 하여, 불교를 폐지하도록 권했다고 한다.

大平之末 始方知燾將化時至 乃以元會之日忽杖錫到宮門 燾聞令斬之 履不傷 燾自斬之亦無傷 飼北園所養虎亦不敢近 燾大生慙懼遂感癰疾 崔寇二人相次發惡病 燾以過由於彼 於是誅滅二家門族 宣下國中大張佛法 始後不知所終

14) 東晉安帝의 연호. 405~418.
15) 漢 代에 長安 以東 京兆尹, 長陵 以北을 左馬翊, 渭城 以西를 右扶風이라 하고 이들을 합쳐 三輔라 한다. 나중에 서울 부근의 땅을 뜻하게 되었다.
16) 원문의 「涉」 앞에, 梁傳에는 「跣」字가 더 있음.
17) 원문의 「云」字가 梁傳에는 없고, 이어서 王胡가 지옥을 두루 다녀온 뒤에 백족화상을 섬기게된 靈驗談이 적혀 있다.
18) 五胡十六國 중 夏 나라 임금(407~431).
19) 원문은 [刀]. 대부분 「刀」로 고쳐져 있는데, 「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실제 《고승전》異本에는 「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다. 梁傳에는 이 글자 앞에 「而」자가 있다.
20) 원문의 「嘆」자가 梁傳에는 없음.
21) 梵語 dhuta의 音譯. 心身을 닦고 탐욕 등을 버리는 수행. 梁傳에는 「行」字 앞에 「之」가 있음.
22) 梁傳에는 척발도 앞에 「後」자 있음. 척발도는 北魏 世祖 太武帝(424~451).
23) 北魏의 博陵郡은 지금의 直隸省 安平縣. 北周의 박릉군은 지금의 甘肅省 臨潭縣의 서쪽이다. 둘다 隋初에 廢함. 여기서는 前者를 가리킨다고 함. 이상은 野村耀昌에 의함.
24) 崔浩(381~450). 北魏의 재상.
25) 邪道란 뜻이니, 여기서는 道敎를 말한다.
26) 정통이 아닌 僞朝 즉 北魏의 재상이므로 僞輔라 함.
27) 梁傳에는 「燾」字 앞의 「爲」가 없고, 「所」字 대신 「仗」또는 「伏」(異本)으로 나옴.
28) 梁傳에는 「寇謙之」를 「寇氏」라고 썼다.
29) 梁傳에는 「佛敎」앞에 「以」字 있음.

태평(太平)[30] 말년에 담시는 비로소 척발도를 감화시킬 때가 온 것을 알고,[31] 원회일(元　會日)에[32] 즉시 지팡이를 짚고 궁궐 문(門)에 이르렀다. 척발도는 담시가 왔다는 말을 듣　고, 그를 죽이라고 하였다. 여러번 베어도 다치지 않자, 척발도 자신이 담시를 베었으나 마　찬가지로 상(傷)한 데가 없었다. (이번에는) 북쪽 동산에 기르고 있던 범에게 집어넣었으　나, 범도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다.[33] 척발도는 매우 부끄럽고 두려워하더니[34] 마침내 역　질(疫疾)에 걸렸으며, 최호와 구겸지 두 사람도 차례로[35] 몹쓸 병에 걸렸다. 척발도는 이　죄과가 최호와 구겸지 때문이라 하여 두 집안을 멸족시키고,[36] 불교를 크게 편다고 나라에　선포하였다.[37] 담시의 최후는 알 수 없었다.

議曰 曇始以大元末到海東 義熙初還關中則留此十餘年 何東史無文 始既叛詭不測之人而與阿道墨胡難陀年事相同 三人中疑一必其變諱也 讚曰 雪擁金橋凍不開 鷄林春色未全廻 可怜青帝多才思 先着毛郎宅裏梅

논평하여 말한다. 담시는 태원(太元) 말년에 해동(海東)에 왔다가 의희(義熙) 초년에 관　중으로 돌아갔다 하니, 이 땅에 십 몇 년이나 머물었는데 어찌 동국(東國) 역사에는 그 기록이 없겠는가? 담시가 본래 괴이하여 알 수 없는 사람이며 아도, 묵호자, (마라)난타와 연대 및 사적이 서로 같으니 아마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필경 담시의 별명이 아닌가 한다.[38]

금교(金橋)에[39] 눈이 덮여 해동(解凍) 아니 되었으니
계림(鷄林) 봄빛 미쳐 돌아오지 않았구나.
깜직할손 봄의 신(神)은 재사(才思)도 많아
모랑(毛郎)[40] 댁 매화 □에 먼저 꽃피었네.

30) 梁傳에는 「至太平」. 「太平」은 「太平眞君」이며, 북위 태무제의 연호(440～450). 「梁敬帝의 연호(556～557)」라고 註한 것(이재호, 이병도)은 잘못이다.
31) 梁傳에는 「始知壽化時將及」으로 되어 있고, 「乃」字 없음.
32) 元日(正月一日)의 朝會.
33) 척발도가 담시를 죽이고자 한 이야기는 梁傳을 많이 축약하여 쓴 것이다.
34) 원문의 「慙懼」가 梁傳에는 「愧懼」로 되어 있다. 필자도 대부분의 주석서와 같이 「懼」로 고쳤다.
35) 梁傳에는 「相」字 없음. 이 逸話와는 달리 최호의 실제 死因은 國史編纂 사건 때문이었다.
36) 원문의 「滅」을 梁傳에는 「剪」으로 썼고, 「家門」 뒤에 「都盡」이 있음.
37) 「宣下國中 」 다음에 梁傳에는 「興復正敎 俄而壽卒 孫濬襲位 方」이 있으며, 「大弘佛法」 뒤에 梁傳에는 「盛迄于今」이 있다.
38) 일연은 우리나라에 온 傳敎僧을 위 3인에 국한시켜 볼려고 한다. 그러나 동진의 고승 支遁道林(314～366)과 書信 왕래한 逸名의 「高麗道人」이 존재했던 사정을 참고하면, 이 어간의 전도승은 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 가운데 중국측 기록에 남은 한 예가 담시라고 생각된다.
39) 신라 최초의 절 흥륜사 지역.
40) 毛禮를 가리킴.